

2024. 3. 23. SAT ——— 특별상영회

첫번째, 구산동도서관마을

2024 은평청년영화제 큐레이션 ; 청년의 시선



제1회 은평청년영화제 제작지원작
〈손수〉



제1회 은평청년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
〈코끼리 뒷다리 더듬기〉



제1회 은평청년영화제 감독상
〈여름밤〉



ESFF
은평청년영화제
EUNPYEONG SALADDAYS FILM FESTIVAL

2024. 3. 23. SAT — 특별상영회

첫번째, 구산동도서관마을

Cine Talk

2024 은평청년영화제 큐레이션

; 청년의 시선

시네토크



〈손수〉감독
최범규

• 은평청년영화제 집행위원장
서종현 •

〈여름밤〉감독
이지원

2024. 3. 23. SAT — 특별상영회

첫번째, 구산동도서관마을

여름밤

2024 은평청년영화제 큐레이션

; 청년의 시선



Q. 민정은 패스트푸드점의 노동자이고, 소영은 편의점의 노동자이다. 소영은 민정이 일하는 패스트푸드점의 소비자로 방문한다. 동시에 민정은 소영의 과외비를 지불하는 사용자이다. 이러한 두 인물의 계급적 관계를 설정한 초기 기획의 목표는 무엇인가?



Q. 민정은 일터에서 거부할 수 없는 주말 출근을 부탁받는다. 민정은 소영에게 과외 시간을 바꿔달라고 하고, 소영은 과외를 하기 위해 대직자를 찾는다. 대신 그 대가로 무급 야간근무와 면접스터디 퇴출을 지불하는데, 전가되고 위탁되는 책임을 쫓는 내러티브는 어떤 계기로 구상하게 되었는가?

2024. 3. 23. SAT — 특별상영회

첫번째, 구산동도서관마을

여름밤

2024 은평청년영화제 큐레이션

; 청년의 시선

가정의 사회화, 학교의 사회화, 일터의 사회화

Socialization of the Family, Socialization of the School, Socialization of the Workplace

"다음 주 주말에 나와줄 수 있어? 일 있어?"

"아... 아니요."

"그럼 좀 도와줘."

"네."

"저번에 금요일로 바꾸는 거요. 선생님이 바꿔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돈 내

고 하는건데, 선생님이 바꿔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안되니까 바꿔주세요."

"너 말대로 선생님이 바꿔줄 수 있는데, 돈이

랑 상관 없어. 돈 때문이 아니야."

"그럼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잖아."

Q. 가정에서 유기된 책임은 학교로, 학교가 방기한 책임은 일터로, 고독한 일터에선 사회화의 책임이 고스란히 민정 자신의 것으로 내몰린다. 자신이 보고 배운 것만을 햇불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민정에게 돈은 타인의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다. 실존적 관계의 신뢰를 가르칠 책임은 어쩔 수 없이 소영이 떠맡아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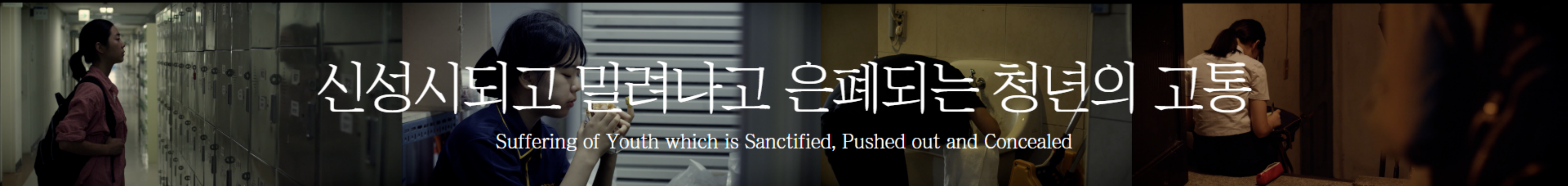
2024. 3. 23. SAT — 특별상영회

첫번째, 구산동도서관마을

여름밤

2024 은평청년영화제 큐레이션

; 청년의 시선



신성시되고 밀려나고 은폐되는 청년의 고통

Suffering of Youth which is Sanctified, Pushed out and Concealed

Q.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로 신성시되어 사회적 논의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청년들은 구석에 은폐된 상태로 발견된다. 낯골당과 같은 사물함, 대걸레처럼 빨아버리는 머리카락, 멀리서 지켜보는 그들의 곱은 어깨에 카메라가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의 나, 현재의 우리, 미래의 너

Me in the past, Us in the present, You in the future

Q. 현재 지점에서 한 인물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만나게 하는, 영화만이 제공 가능한 시간의 초월적 경험을 할 수 있다. 두가지 시간선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중간 지점에서 만나, 점층적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가는 소영과 민정. 그들을 왜 분리하여 다시 만나게 했는가?

2024. 3. 23. SAT — 특별상영회

첫번째, 구산동도서관마을

여름밤

2024 은평청년영화제 큐레이션

; 청년의 시선



"모르는 질문과 아는 질문의 격차가 너무 크신 것 같아요. 모르는 게 나왔을 때 티가 너무 많이 나서, 면접장에서 그렇게 한 번 버벅거리면 다신 질문 안하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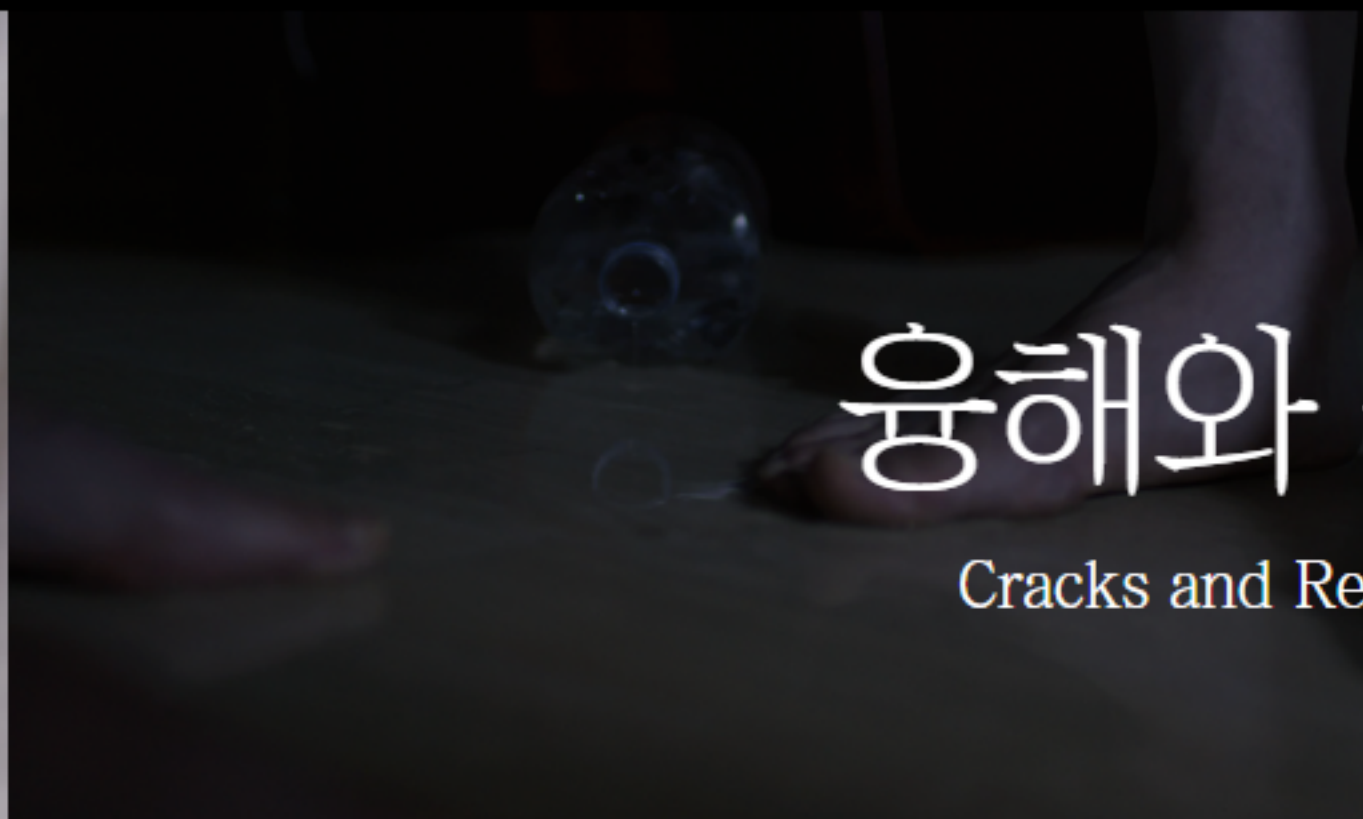
"그러면 알겠는데, 자꾸 여기서 틀려요."
"안 틀릴 때까지 풀어보고, 더 열심히 해야지."

Q. 실수하면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세상, 모르는 것을 맞닥뜨리면 금세 티가 나는 인생의 초보. 미지의 세계를 눈앞에 둔 청춘은 그저 더 열심히 하는 수 밖에 도리가 없다. 알 수 없는 일에 취하는 우직함의 방식은 언제든 배반당하기 쉽다. 청년이 더 영리해지도록 요구될 순 없는가? 청년의 끝자락에 선 감독님께 소영의 안부를 묻는다.

2024. 3. 23. SAT — 특별상영회
첫번째, 구산동도서관마을

손수

2024 은평청년영화제 큐레이션
; 청년의 시선



Q. 준형은 땀이 흐르는 탓에 정은과 누리는 일상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 버릴까 불안해 하다 결국 관계를 그르쳐버린다. 일상의 균열에 힘들어하는 정은에게 준형은 늘 하던대로 목에 수건을 걸어 일상을 회복한다. 눈물과 땀이 한 줄기가 되고, 준형의 손을 일시적으로 치료하는 손수건은 어떤 의미인가?



Q. 준형은 펜으로 라인을 그리고, 정은은 태블릿으로 채색하여 일러스트를 그린다. 준형의 불안은 아날로그로서 뒤쳐지는 두려움에 기인한다. 필름에서 디지털로의 전환, 시네마에서 OTT로의 기로에 서있는 영화 산업에 대한 은유로 느껴지는데, 청년 독립영화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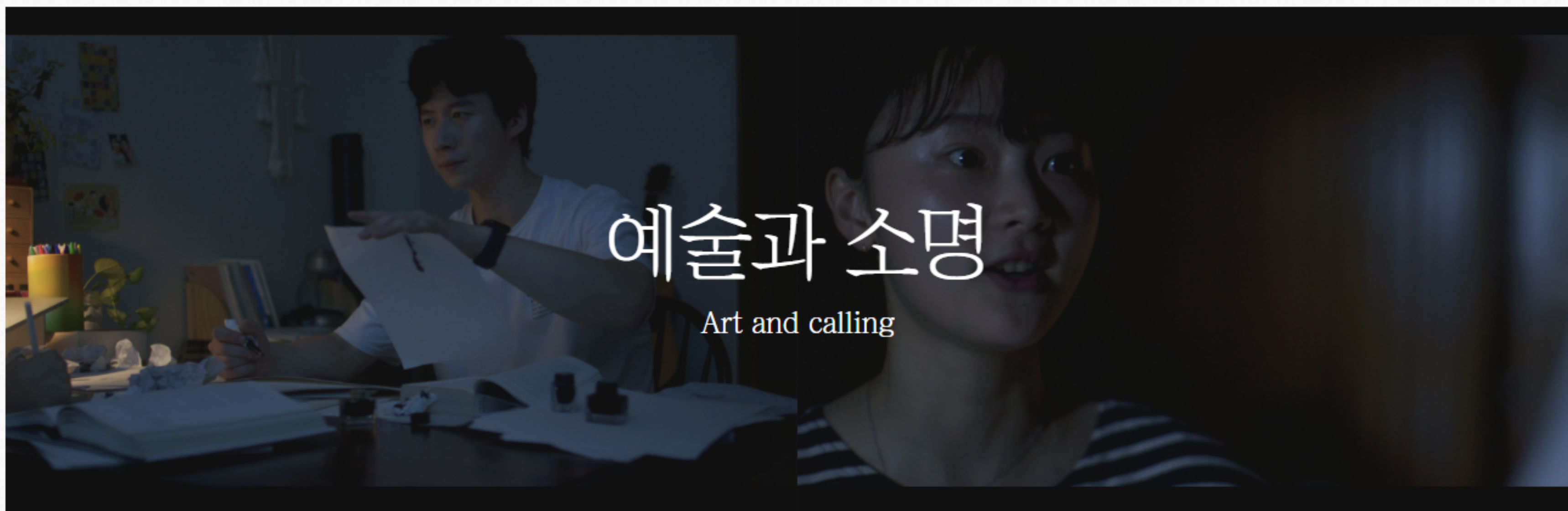
2024. 3. 23. SAT — 특별상영회

첫번째, 구산동도서관마을

손수

2024 은평청년영화제 큐레이션

; 청년의 시선



"내가 병원 가기 싫어서 안가? 이따위 그림 그려봐야 돈도 안되고, 이 날씨에 에어컨도 없어서 이따위로 사는데 돈이 어딴아서 가?"

"너는 좋은데,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뭐가 될지 모르겠다."

Q. 영화의 서사를 통해 엿볼 수 있듯, 예술가가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 병이 생겨도 금전적 여유가 없어 병원을 찾지 못하는 삶을 살지 모른다. 그럼에도 꾸준히 영화 작업을 지속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2024. 3. 23. SAT — 특별상영회

첫번째, 구산동도서관마을

Guest Visit

2024 은평청년영화제 큐레이션

; 청년의 시선

관객과의 대화



〈손수〉 감독
최범규



은평청년영화제 집행위원장
서종현



〈여름밤〉 감독
이지원

EUNPYEONG
SALAD-DAYS
FILM
FESTIVAL

2024년 제2회 은평청년영화제

8. 31.(토) ~ 9. 2.(월)

롯데시네마 은평

감독 및 배우 GV 진행
영화제 굿즈 증정 이벤트
입장료 무료

영화제 개최소식을 받고 싶다면
인스타그램 @ esff_official
홈페이지 www.esfilmfest.com



연내 수시 큐레이션 ; 특별상영회
2024. 5월 영화제작 및 비평 교육
2024. 4월~ 청년센터 영화동아리

ESFF
은평청년영화제
EUNPYEONG SALADDAYS FILM FESTIVAL

2024. 3. 23. SAT ——— 특별상영회

첫번째, 구산동도서관마을

2024 은평청년영화제 큐레이션 ; 청년의 시선

